

7급 이하 대규모 전입 인사 놓고 광주시·자치구 ‘시각차’

5개 자치구→광주시 전입 규모 해마다 100명 안팎
구 “업무 공백·비효율 불가피...인사 교류 체계화”
시 “인력 수급 예측 어렵지만 혼선 최소화 노력 중”

광주시에 5개 자치구 공무원이 해마다 100명 안팎 규모로 전입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구에선 예상치 못한 전입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비효율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보다 체계적인 인사 교류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공정한 시험을 거쳐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인사 교류이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임용 공무원 총원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5개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한 공무원은 41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명(상반기 34명·하반기 70명), 2018년 105명(29명·76명), 2019년 109명(53명·56명), 올해 92명(50명·42명) 등이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에서 시로 이동하는 공무원 수는 대체로 100명 안팎 규모다.

시는 상반기 인사 계획을 발표한 뒤 7급 이하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1차

례 진행,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뽑는다. 퇴직·휴직·조직 개편 등 시에서 발생한 결원을 메꾸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결원 수요를 파악, 전입시험 우수자 중 상반기 미전입 인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후속 전입인사를 단행한다.

이 같은 시·자치구 인사 교류에 대해 자치구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숙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요 인·허가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고, 예측조차 어려워 인력·업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건축공무원들은 “기초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업무도 전문성과 경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이 해도 어려운 일이다. 최소 3년 가량은 해당 업무를 전담해봐야 한다”며 “유능한 인재를 시에서 데려간다면 일선 행정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이 전입

시험을 응시하는 거라지만, 광역·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소용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각 자치구마다 직렬·직급별로 실무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한 인사 담당자는 “일선 구청이 시청 공무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다”며 “자치구에서 업무 능력을 키운 직원들을 무조건 시가 데려간다면 문제다. 기초지자체 행정의 영역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시·구간 전입 인사를 둘러싼 이견은 늘 있어왔다. 지난 2018년 협약을 통해 시가 한발 물러서 신규 임용 공무원 전입 비율을 50%로 늘렸다”면서도 “각 자치구별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전입 인사 규모 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결원 규모는 예상 가능하지만, 조직 개

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는 상반기 전입 시험에 앞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의 인원 승인 등이 9~10월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전입인사 규모를 선별리(자치구에) 통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인사 전입은 각 자치구에 신규 임용 공무원이 발령받기 직전에 시행한다. 인력 대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시에서도 자치구의 목소리를 수용해 신규 임용 공무원 수를 폭을 늘린 것이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시에선 7급 공무원이 실무자 역할을 한다. 광역지자체 조직 구조 상 일정 경력·직급을 갖춘 전입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구간 인사교류와 관련해 실무자급 회의를 수시로 열어 폭넓게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공원 관통이라니”... ‘여수미평공원’ 가르는 150m 도로 반대 목소리

여수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 개설 추진 중인 미평공원횡단도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평공원횡단도로 개설공사는 20억 원을 들여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옛 미평역사 구간까지 길이 152m, 폭 8m로 미평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여수시, 교통난 해소위해 ‘미평공원 횡단도로’개설 재개 고민
시민사회단체 “옛철길공원 관통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성토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시에 따라 옛철길공원 경계까지 조성했던 도로 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요구와 함께 횡단 도로 개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부에서 미평공원 횡단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여수시가 도로개설 재

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 문갑대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와 민관산 거버넌스 조직이 협력해 자전거 길을 만들고 아이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여수 푸른길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2차선 도로건설정책은 한마디로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출퇴근 교통정체 주장은 공원과 상관없는 현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교차로 구조 변경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도심의 공원은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핵심 가치이며 도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



전라선 옛 철길공원으로 변모한 여수시 옛 미평역 부근

는 척도이기도 하다”면서 “미평공원을 포함한 옛철길공원은 여수의 많은 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핵심 공원이기에 관통 도로를 개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평공원 인근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리며 심한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과 상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기

존 계획했던 도로개설이 이뤄질길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시는 교통 대책을 잘 판단해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 사람들과 여수진보연대는 미평공원 도로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원 관통 도로 반대를 표명화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스릴 만점’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내년 개통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가 내년 하반기 개통된다.

해남군은 민간자본 350억원이 투입되는 울돌목해상케이블카 공사를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9월에 열리는 명량대첩축제 전 본격 개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착공한 공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총길이 960m의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10인승 곤도라 26대가 투입된다.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 1854㎡(지하 1층, 지상 3층)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타워 일원 504㎡(지하 1층, 지상 1층)에 승강장 등이 건립된다.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지인 명량해협은 해남과 진도의 경계를 흐르는 길이 2km의 수로이다.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거칠어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물살의 속도가 최대 11노트(시속 22km 안팎)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바다이다.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회오리 바다’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